

환우 속에 계시는 하느님

한덕순 글라라

순천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제가 살아오면서 늘 화두가 되었던 것은 하느님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을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쓰기를 원하실 것 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호스피스 봉사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봉사를 시작하지도 10여년이 되었고 봉사를 시작한 즈음부터 저의 하루 일과는 아파트 뒷동산 등산으로 시작하는데, 아파트 담장 길에 피어 있는 가냘픈 꽃들, 여기저기에서 지저귀는 이름모름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와 함께 조그마한 계곡에서 졸졸 흐르는 물길을 따라 올라가는 오솔길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사랑은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참된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 스스로 행할 때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잘 것 없고 내 세울 것 없는 저의 작은 봉사가 아픈 이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어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게 봉사할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환우분들이 “나도 몸이 나으면 봉사를 해야지” 할 때 저의 마음은 애처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교만 때문에 타인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지냈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고 건강하면서도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환우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 두 분들을 생각해봅니다. 간암으로 고통 받고 계시던 한분이 대세를 받고 매일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부인에게 평생을 폭력을 행사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인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지” 라고 용서를 청했다고 좋아 하시며 이제 부부사이가 좋아진지 한 5년 되었는데 이제 살만 하니까 이렇게 몸 쓸 병이 걸렸다고 낫두리하던 자매님, 40초반 폐암 남자 환우분으로 사랑하는 부인과 헤어졌다 부인이 그리워 다시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여서 추억 만들기로 호스피스 기도실에서 신부님 주례로 가족과 친구, 수녀님, 간호사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해하는 부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그날은 저의 결혼생활 30년보다 더욱 보람 있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환우들에게 성가를 불러 주고 가족들의 식사제공을 위해 반찬봉사를 하면서 환우와 가족들이 편안해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안에서 하느님은 “정말 이분들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시는구나”라는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져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길 희망해봅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 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